

멤버케어의 사역적 적용:
교회, 선교단체, 케어전문기관의 공동체적 협력

지역교회와 선교단체를 위한
선교사 멤버케어 및 위기관리 세미나
고신 세계 선교센터
2013.10.28.~2013.10.29.



엄은정 (M.A. Ph.D 수료)
하트스트림 한국센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860 래미안휴레스트 209-301
TEL. 031-818-8185 FAX. 031-818-8105
email: ejum.dir@hsrk.or.kr homepage: www.hsrk.or.kr

1. 멤버케어에 대한 관점

필자가 금번 선교사 멤버케어 및 위기관리관리 세미나에서 맡은 주제는 ‘멤버케어의 사역적 적용’으로 ‘교회, 선교단체, 케어전문기관의 공동체적 협력’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필자에게는 본 세미나가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선교단체 사역자들을 위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감동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멤버케어가 한국에 소개된지 큰 이십여년이 되었고 지난 십여년간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멤버케어 여정은 미약하고 느린 걸음이었다. 멤버케어의 ‘가치와 필요는 인정’하지만 ‘실현하기는 아직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혹자는 멤버케어를 실행 하는 것은 ‘바위에 계란 던지기’와 같다고도 했다. 그렇듯 멤버케어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홀대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멤버케어’란 용어가 회자되고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멤버케어란 무엇인가?’, ‘선교사의 위기관리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디브리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와 같은 굵직굵직한 질문들이 선교단체들로부터 제기되었다. 한국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멤버케어로 전환하게 된 실제적인 이유가 선교사들의 갖가지 위기사건과 문제들에 있다는 것은 분명 자성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더 이상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외양간)고치는’ 일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문제에 봉착한 선교사들을 만날 때, ‘하나님은 고치시길 좋아하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말을 자주한다. 예수님이 목수였다는 것을 상기하면 그분의 섬세하신 손길로 종으로 부르신 당신 자녀들의 삶을 친히 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게 된다. 필자는 최근 멤버케어에 대한 선교 관련자들과 교회의 관심이 확대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돌봄의 의지만큼 강하고, 영속적이며, 지치지 않는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에 젖어 들게 된다. 멤버케어를 사역에 적용하는 것은 기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사역에 드러내는 일이다. 그것은 멤버케어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분의 돌보심에 참여하는 일이다. 부연하자면, 멤버케어를 실천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사랑의 행위를 대행하는 것이다(요 19:27: 어머니를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심).

필자는 기업체 인력관리를 대행하는 컨설팅사에서 직원들의 정신건강과 역량개발을 위한 실무 책임자로 일한 경험이 있다. 기업경영의 성공여부는 인재경영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그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기업의 이윤창출과 직접 관련되므로, 기업들은 인력관리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가 어려운 것은 보다 탁월한 기능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에 매진해야하기 때문이다. 평생 교회와 선교단체의 울타리 안에서 사역했던 필자에게 기업체에서 일한 4년간의 외출은 기독교 가치관과 충돌되는 세속

적 가치들과 정면으로 부딪혀야 했던 시간이었다. 사랑, 헌신, 희생, 그리스도인의 핵심 덕목들을 삶으로 살아내기는 세상은 치열한 경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모순 되게도 교회 밖에서 멤버케어 사역에 깊이 관여하면서 이전에는 교회 안에서 체감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느끼게 되었다. 그것은 안타깝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자들에게 요청된 강요된 헌신과 희생, 방치된 사랑이었다.

얼마 전 필자는 멤버케어 사역을 위해 동역했던 젊은 목사로부터 멤버케어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소감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사역을 위해 강요되었고 자신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강요하며 돌봄이 결여된 사역을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고 했다. 돌봄에 대한 그의 관점의 변화는 그의 사역의 질과 목양적 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확신하건데, 그는 하나님의 돌봄의 성품에 한 걸음 다가갔기 때문이다.

필자는 앞에서 멤버케어를 사역에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언급한바 있다. 하나님은 그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우리를 절대 희생시키거나 이용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이루신 고귀한 십자가의 희생은 인류를 향한 충만한 사랑의 열매였지 과업 수행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목회 신학자 시워드 힐트너(Seward Hiltner)는 얼마나 목양적인 관점을 갖느냐가 목회의 중요한 결정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멤버케어를 우리의 사역에 얼마나 잘 적용하는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목양적 관점과 태도, 신념들이 있는지 성찰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필자는 선교사 자신과 교회들이 선교사에 대해 갖고 있는 관점과 신념을 아래의 목록으로 정리해 보았다. 하나는 멤버케어를 방해하는 선교사들에 대한 왜곡된 관점들이고, 다른 하나는 이것들을 돌봄의 관점으로 수정한 것이다.

도표 1. 선교사에 대한 관점과 신념들

왜곡된 관점	-----> 돌봄의 관점
1. 선교사는 희생하는 사람들이다.	1. 선교사는 생명을 이루는 사람들이다.
2. 선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2. 선교사는 마술사가 아니며 제자이며 평범한 인간이다.
3. 선교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3. 선교사는 청빈한 삶을 사려고 노력한다.
4. 선교사는 강한 사람들이다.	4. 선교사는 타문화권에서 약해진다.
5. 영적인 선교사는 항상 건강하다.	5. 영적인 선교사도 탈진, 침체될 수 있다.
6. 선교사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신다.	6. 선교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질병과 위기,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다.
7. 선교사는 후원 대상자이다.	7. 선교사는 타문화권에서 사역하는 동역자이다.
8. 능력 있는 선교사는 복음의 열매를 속히 맺는다.	8. 선교사가 회심자를 얻기까지 수십년이 걸릴 수 있다.

9. 선교사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9. 선교사 가정은 돌봄을 위임 받은 파송교회가 책임지고 돌봐야 한다.
10. 선교사라면 어려운 일도 겪어봐야 한다.	10. 선교사의 어려움은 곧 교회의 어려움이다.
11. 선교사의 사역비는 교회 형편에 따라 바꿀 수 있다.	11. 선교사의 사역비는 교회가 끝까지 책임진다.
12. 선교사의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순교이다.	12. 선교사의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귀환이다.

2. 멤버케어의 적용 원리, 역할, 실행 방법

멤버케어의 필요성과 책무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들을 통해서 잘 숙지되었으리라 본다. 그러므로 본 강의에서는 멤버케어 적용을 위한 핵심 원리와 역할, 실행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 파송자 케어의 실천 원리

멤버케어 전문가, 오도넬과 폴락은 멤버케어 모델에서 5개 차원의 케어와 케어의 흐름을 위한 실천 원리들을 제안했다. 선교사 케어를 위해 이 모델이 주장하는 바는 ‘케어의 흐름’과 그 흐름이 각 차원으로 상호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드는 실천 원리이다.

표 2. 케어의 흐름을 위한 실천 원리

케어 영역	케어의 흐름을 위한 실천 원리
1. 주님의 케어	1. 그리스도
2. 셀프/상호 케어	2. 공동체
3. 파송자 케어	3. 헌신
4. 전문가 케어	4. 자원
5. 네트워크 케어	5. 관계

필자는 여기에서 파송자 케어(교회, 선교단체)에 초점을 두어 그 실천원리인 ‘헌신’을 살펴보고자 한다. 멤버케어에 있어서 헌신은 선교사 돌봄을 실행하겠다는 의지와 행위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멤버케어의 흐름을 살펴보면, 파송자 케어에서 정체된 것을 볼 수 있다. 마치 수로가 막힌 논처럼 멤버케어에 대한 한국교회의 인식은 깊이가 없고 왜곡된 믿음들로 막혀있다. 이로 인한 결과를 직접 체감하는 것은 선교사들인데, 이들은 멀리 타국에서 방치되고 버려진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정작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에도 주저하게 되고 홀로 문제를 감당하게 된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최근 몇 년 동안 멤버케어에 대한 선교단체들의 관심과 이에 대한 헌신이 현저하게 높아졌다. 하트스트림은 멤버케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선교단체들이 케어부서를 세우고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지켜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선교 단체 내에 시스템 운영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하트스트림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선교단체와 교회, 멤버케어 전문기관의 삼자 협력관계를 제시해 왔다. 무엇보다 필자가 협력관계를 중시하게 된 것은 선교사들과의 상담과 리서치를 통해 교회를 향한 그들의 심리내적 필요와 영적 지향성을 확인하게 되면서이다.

2) 파송자 케어의 역할

실제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파송/후원교회들에 대해 복잡한 심정을 갖고 있다. 연로하신 부모님, 정서적으로 멀게 느껴지는 형제자매, 집 없이 떠돌아 다녀야 하는 나그네와 같은 형편, 어느새 낯설어진 고국의 생활방식, 환영 받지 못한다는 느낌 등, 선교사에게는 드러내기 어려운 개인적인 이슈들이 있다. 하지만 선교사가 교회로부터 케어를 잘 받든 그렇지 못하든 교회는 선교사에게 영적 산실이며 심정적으로는 친정과 같은 곳이다.

멤버케어 차원에서 교회의 역할은 관계적 특성이 매우 강하다. 선교사가 선교적 기량을 힘껏 발휘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소명의식과 깊이 있는 영성, 정서적 안정감, 내적 확신 등 심리내적인 동기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장 자연스럽게 친밀한 방식으로 선교사의 정서적, 영적 욕구를 공급하는 형태의 멤버케어를 마련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런 면에서 선교단체는 교회와 다른 특성의 돌봄의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 선교단체는 선교사들의 은사와 역량을 개발하고 실현하며 선교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산실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교단체는 훈련과 개발, 코칭과 같은 행정적 체계 안에서 선교사들의 실현적 욕구를 공급하는 형태의 멤버케어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교회는 케어의 정서적, 영적 장을, 그리고 선교단체는 케어의 실현적 장을 마련함으로써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되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3) 파송자 케어의 실행 절차 및 방법

파송자 케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이며 구체적이고 다양한 접근 방법들이 필요한데, 그 케어의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1) 케어의 유형

첫 번째 유형은 생존 방임형 케어로 설명할 수 있다. 생존 방임형 케어는 선교사들에게 선교사가 생존할 정도의 최소한의 케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유형은 멤버십의 명목만 유지하고 선교사와 형식적 관계를 유지한다. 선교사의 희생을 기대하고 그들의 필요를 외면하며 무관심한 태도를 갖는다.

두 번째 유형은 통제 간섭형 케어이다. 통제 간섭형 케어는 선교사와의 관계가 상하 수직적이며 주종 관계를 형성한다. 선교사에게 케어를 제공하나 조건적이며 성과 중심적이다.

세 번째 유형은 관계 지지형 케어이다. 관계 지지형 케어는 모유를 수유하는 어머니처럼 선교사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그들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제공한다. 반면 이 유형의 케어는 일방적이며 선교사에 대한 기대가 크다.

네 번째 유형은 성장 협력형 케어이다. 성장 협력형 케어는 선교사와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선교적 협력 관계를 갖는다. 파송자와 선교사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며 선교사의 권위와 파트너십이 존중된다. 이 유형은 선교사의 성장과 개발을 위해 투자한다. 본국과 현지 공동체가 상호 케어하고 협력함으로써 멤버케어를 통한 선교의 지평을 확대한다. 이들 유형들 중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네 번째 유형이다. 세 번째 유형에서 네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는 단계는 많은 부분 파송자의 성숙성과 선교학적 이해가 요구된다.

상위 유형들을 염두에 둘 때, 케어의 흐름이 우리를 관통하게 하려면 두 가지의 성찰 습관이 필요하다. 첫째는 케어의 주체되신 주님의 관점으로 보려는 것과 둘째는 돌봄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이 되는 것이다. 양질의 멤버케어를 제공하려면 돌봄을 받는 자들의 생애 발달적 필요와 사역의 발달과정, 그들이 처한 선교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야 실제적이고 유용한 도움을 공급할 수 있다. 참된 멤버케어는 제공자 중심의 케어가 아니라 수용자 중심의 케어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멤버케어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사회적으로 부각된 성공적인 시나리오나 비극적인 사건들과 긴장감을 유발하는 스토리의 주인공들에게 초점을 둔 멤버케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것들은 우리의 감성과 연민을 쉽게 자극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매개체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조명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선교인력에 대한 돌봄을 약화시킨다. 그 결과 선교사들이 주목을 받기 위해 자신들을 왜곡되게 포장하는 일그러진 모습을 보인다. 도움을 요청했는데 상대가 듣지 않으면 더 큰 목소리, 더 큰 몸짓,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의 고충을 방임했다. 선교사들이 청렴함과 인격의 고결함을 지키며 선교 사명을 완수하려면 공동체 안에 양육과 계발, 개성을 존중하는 멤버케어를 창조해야 한다. 그것은 선교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인의 덕목인 사랑과 헌신, 희생을 자발적으로 흘러나오게 하고 건강한 형태의 돌봄의 문화를 강화시킨다.

(2) 멤버케어 준비: 리더십의 변화

멤버케어 실행을 위해서는 준비 과정과 실행 기반이 필요한데, 그것은 상당히 리더십(당회장, 당회, 해외선교위원회, 단체장, 선교국장, 선교위원장, 후원위원 등)의 변화 과정과 일치한다.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이것은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다. 지도자들이 어떠한 목양적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케어의 방향성과 질적 수준, 자원의 운영 체계가 좌우된다.

리더십의 변화 다음으로 중요한 준비과정은 회중들과 이들을 대표하는 핵심 리더들을 위한 교육이다. 멤버케어에 관한 세미나, 선교특강, 워크숍 등을 개최해 회중의 이해를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선교단체는 선교사들에게 멤버케어의 필요성과 활용 방법을 다양한 경로(회지 및 소식지, 선교사 지침서, 선교정책회의, 연례대회, 선교사 훈련, 연장 교육, 간증 및 구두효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해야 한다. 선교사들 대부분이 멤버케어에 대해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그 유용성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 멤버케어 실행 절차 및 방법

교회와 선교단체가 멤버케어를 실행하는 절차와 방법에는 역할의 차이가 있다. 먼저 교회의 경우 다음의 주요한 절차들을 고려할 수 있는데,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들이 적용될 수 있다.

가. 교회

1. 케어 그룹 조직: 멤버케어 그룹이나 위원회를 조직하고 돌봄의 은사와 인격적 소양을 갖춘 케어자들을 세운다. 목회자 중에 케어 그룹을 돕는 사역자를 세워 멘토링하고 케어 과정에서 보안이 필요한 선교사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감독한다.

2. 자원 확보: 케어 그룹은 교회 내의 인적, 물적, 영적 자원을 발굴하고 케어 네트워크를 확보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도들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돌봄의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도록 기여한다.

3. 돌봄 제공: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들을 동원해 선교사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한다(예: 안식관, 기도편지, 케어 패키지, 홈커밍(home coming), 차량 및 생활물품, 휴가여행, 방문 등). 돌봄을 제공할 시, 돌봄의 창구를 하나로 통일시켜 멤버케어가 진행되는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한다.

4. 전문가 협력: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경우 선교단체, 케어전문기관과 협력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예: 건강검진, 디브리핑, 상담, 위기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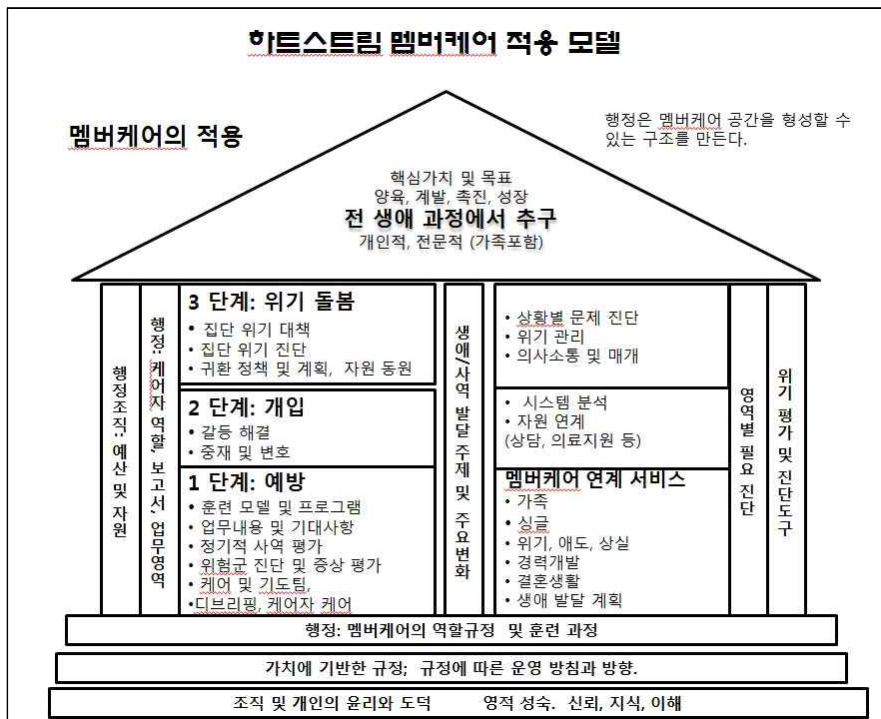
교회의 멤버케어는 회복과 갱신, 그리고 환대의 장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진정한 환대는 선교사의 존재감을 높여주고 소속감을 느끼게 한다. 교회는 선교사를 평가하는 단체나 기관이 아니다. 교회는 선교전략을 실행하는 행정부의 역할을 수

행하기 보다 그것이 실현되도록 물질, 영적 자원을 제공하는 보급처가 될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라는 가장된 신념 뒤에 숨어서 최전방에 세운 선교사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선교사의 성숙도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 더욱 견고해 진다. 선교사들에게 쉼과 회복,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는 돌봄의 공동체는 교회에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나. 선교단체

선교 단체의 멤버케어는 구조화된 시스템과 행정력을 갖춰야 한다. 단체는 선교사 인력관리를 위해 교회와 전문기관을 연계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협력은 단순히 예산이나 자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공유된 목적을 기반으로 협력을 도출해 내야 한다.

하트스트림의 Lois Dodds 박사는 멤버케어 적용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케어 시스템은 핵심가치와 철학, 돌봄의 윤리가 반영된 행정 지침을 기반으로 한다. 이 기반 위에 케어를 위한 자원, 행정, 케어의 주제, 진단 및 평가를 구조화 한다. 이 구조는 3단계로서 예방, 개입, 위기와 관련된 멤버케어 사항들로 채워진다. 모델의 지붕이라 할 수 있는 멤버케어의 최상의 목표는 선교사의 전 생애 과정에서 양육, 계발, 촉진, 성장을 추구한다. 이 모델에서 모든 행정은 케어의 공간을 마련하는 구조적인 역할을 한다. 하트스트림의 멤버케어 적용 모델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필자는 선교사 케어를 위해 필요한 관점, 역할, 방법들에 대해 논의했다. 그런데 선교사 케어를 실행하다 보면 지나친 케어가 선교사를 나약하게 하고 의존성을 높이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의구심은 케어의 영역을 협소하게 단정 할 때 그러하다. 멤버케어는 돌봄의 차원을 넘어 선교사의 역량 계발을 위해 투자하는 차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파송자는 선교사의 계발이 선교사에게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선교목적과 비전을 성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물질, 시간적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3. 공동체적 협력: 교회, 선교단체, 멤버케어 전문기관

필자는, 멤버케어는 교회, 선교단체, 멤버케어 전문기관의 3자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것은 부족한 자원 때문이 아니라 각 단체의 역할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러하다. 선교 단체는 케어 전문가를 고용해 전문가 영역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인건비, 전문가 부족, 선교사의 낮은 신뢰, 비밀보장과 같은 제한점들 때문에 실행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서구 선교단체들과 일반 기업체들 역시 케어 부서를 두고 전문 인력을 아웃소싱 한다.

일반 상담/컨설팅 기관과는 달리 멤버케어 전문 기관들은 이윤 추구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 대부분의 멤버케어 전문가들은 선교와 헌신을 기반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 이들은 선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상담학, 심리학, 신학 등의 학문적인 소양을 갖춘 것 외에도 그 자신이 선교사이거나 타문화 경험이 있어서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차원에서 전문기관과 협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에 초점을 둔 공동체적 협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협력’만큼 실행하기 어려운 과정이 있을까? 협력에는 복잡한 인간관계와 힘, 가치관이 얽혀있는데, 이 장벽들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멤버케어는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교사에게 돌아간다. 케어의 흐름이 작동되려면 ‘자기’ 중심의 사고를 버리고 파트너십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그것은 전략적인 협력을 의미한다.

4. 공동체적 협력의 실제 (사례)

필자는 멤버케어 실행자로서 공동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사역에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하트스트림의 사역 철학과 치료적 개입 역시 공동체에 기반한다. 필자는 앞에서 제안한 것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몇가지 멤버케어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어떻게 협력이 가능한지 설명하고자 한다.

1) 사례

(1) A 단체 (국제 단체)

- ☞ 멤버케어 디렉터는 개인적인 위기 사건으로 케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됨.
- ☞ 디렉터 자신이 멤버케어를 받고 케어자 훈련에 참석함
- ☞ 훈련 후, 한국인 케어 전문가를 네트워킹 함.
- ☞ 하트스트림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한국 선교사 그룹을 위한 멤버케어를 시행하기로 결정함
- ☞ 하트스트림은 2010년, 2012년 2차례에 걸쳐 현장 케어를 함.
- ☞ 멤버케어 실행 과정에서 A단체의 멤버케어는 필요한 물자와 장소를 제공함
- ☞ 멤버케어 실행 후, 단체 간 컨설팅과 자문을 제공함
- ☞ 멤버케어 종료 후, 참여자들은 하트스트림과의 자율적인 케어관계를 갖고 있음

(2) B 교회

- ☞ B 교회의 K 담임목사는 필자 부부와의 교제를 통해 멤버케어 사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됨
- ☞ 개인적인 어려움과 섬의 경험을 통해 선교사 돌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 ☞ K 목사는 하트스트림의 케어팀으로 현장 케어에 참여함
- ☞ 현장 케어를 통해 멤버케어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됨
- ☞ 현장 케어 후, 설교와 목회에 변화가 생김(선교학교와 멤버케어 세미나 개최)
- ☞ 성도가 자신의 집을 선교사 게스트 하우스로 사용하도록 함.
- ☞ 담임 목사 부부가 선교사들을 재방문해 쉼과 위로의 시간을 제공함
- ☞ 담임 목사의 케어를 통해 후원 선교사의 암을 발견, 수술 후 치료 중임

(3) C 단체

- ☞ 케어팀이 하트스트림을 방문해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브리핑을 받음
- ☞ 단체가 P 선교사에게 디브리핑을 권유하였으나 선교사가 거절함
- ☞ 단체의 지속적인 권유로 디브리핑에 참여했으나 선교사의 기대가 낮았음
- ☞ 디브리핑 후, P는 생전 처음 가장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함
- ☞ 선교단체와 파송 교회의 협력 가운데 파송교회가 디브리핑 비용을 지불함
- ☞ P 선교사는 멤버케어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단체와 교회에 감사의 뜻을 전함; 단체와 교회가 하트스트림에 감사의 말을 전함

(4) D 단체

- ☞ 단체장의 멤버케어에 대한 의지와 실행력이 높음
- ☞ 멤버케어 협력관계가 신속히 체결됨

- ☞ 공식적인 의뢰과정을 통해 추방된 선교사들을 위한 위기 디브리핑을 실시함
- ☞ 선교사 가족이 교통사고로 소천. 위기사건에 개입된 단체의 팀원들을 위한 디브리핑 실시 (본부팀과 현장팀)
- ☞ 싱글 선교사들을 위한 멤버케어 프로그램을 제 3국에서 공동 실시함
- ☞ 선교사 디브리핑을 위기 디브리핑에서 안식년 디브리핑으로 확대함
- ☞ 디브리핑 실시 후, 하트스트림은 단체에 디브리핑 소견서 제공
- ☞ 디브리핑 실시 후, 하트스트림은 선교사에게 디브리핑 서신 제공

2) 하트스트림의 디브리핑과 SPARE 케어 모델

하트스트림은 SPARE (영적, 신체적, 실현적, 관계적, 정서적) 케어모델에 따라 선교사들의 케어를 전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센터에 숙박할 수 있는 게스트룸을 마련하고 1박2일, 2박3일의 디브리핑을 마련하고 있다. 디브리핑은 목회적 케어와 함께 식탁 나눔, 1:1 대면의 집중케어를 제공한다. 디브리핑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안락한 침과 디브리퍼를 비롯한 참여자 모두가 주님의 케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디브리핑과 함께 심리상담과 코칭을 병행하고 있으며 선교지로 찾아 가서 케어를 제공하는 모바일 케어를 실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선교단체와 교회의 초청에 응해 비즈니스 선교, 선교적 교회와 같은 선교와 멤버케어에 관련된 주제들로 선교훈련 및 세미나, 워크숍을 제공한다.

다음은 가족과 같은 사역자 동료들 비행기 추락사로 잃고 애도의 슬픔을 함께 나누었던 선교사 가족이 디브리핑 후, 남긴 글이다.

“두 분의 섬김을 통해 주께서 베푸신 침과 위로에 감사드립니다. 오랜 친구처럼 저희의 뉘그러리를 들어주신 일, 지혜로운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신 일, 맛난 음식과 아늑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주신 일, 좋은 시와 의미 있는 말씀으로 묵상하고 거닐만한 아름다운 풍경을 제공하신 것까지 ...그 세심한 배려에 오롯이 주님의 위로하시는 손길을 느꼈습니다.”

* 케어의 흐름에 대한 말씀 묵상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요 7:37-39)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4).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 물이 흘러들어 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9)...강 좌우가에

는...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그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어부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10)..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12)(겔 47:1-12).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 두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 22: 1-2).

* 멤버케어 추천도서

보내는 선교사, 예수전도단

선교사 멤버케어, CLC

선교사와 사역자를 위한 멤버케어, 한국해외선교회 출판부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 두란노 서원

잃어버리기에 너무 소중한 사람들, 조이선교회

영광스런 상처, 학지사